

코스피	2610.38 (+40.67)	코스닥	781.01 (+12.03)
금리 (연이자율)	2.960 (+0.136)	환율 (원/달러)	1346.25 (+12.55)

공사비 상승, 시멘트가 주범?... 근본원인 외면한 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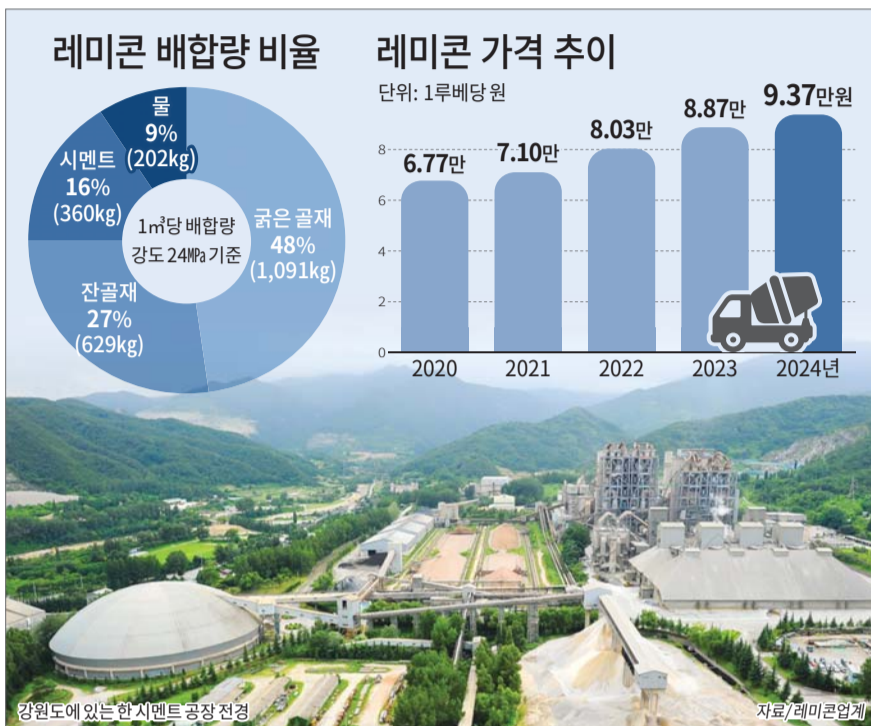
정부, '공사비 3대 안정화' 방안서 사실상 시멘트가 '주범'으로 지목

레미콘 원가서 시멘트 비중 16% 전체 건축비에 미치는 영향 미미 시멘트 수입 신중하게 접근해야

시멘트가 못매를 맞고 있다. 정부가 이달 초 '공사비 3대 안정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시멘트를 공사비 인상의 주범으로 내몰면서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대책에서 최근 3년간 연평균 8.5%로 크게 올랐던 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최대한 안정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시멘트 등 주요 자재가 수요·공급자간 자율협의를 통해 적정가격을 찾아갈 수 있도록 '수급 안정화 협의체'를 운영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특히 민간에서 해외 시멘트 수입을 추진할 경우 관련 애로 해소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공사비 인상을 막는 것이 시멘트값을 잡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그런데 공사비(건축비)에서 시멘트값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가는 통상 땅값(택지비), 건축비, 각종 비용(금융·마케팅·일반관리비, 세금 등), 그리고 이윤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시멘트와 직결되는 건축비에는 자재비, 인건비, 설계비 등이 들어간다. 건축자재에는 철골, 레미콘 그리고 내부를 치장하는 인테리어 자재 등이 속한다. 레미콘은 다시 시멘트, 모래·자갈 등 골재, 그리고 물을 섞어 만든다. 레미콘이 굳으면 콘크리트가 된다.



일반적으로 레미콘은 골재 76%, 시멘트(플라이애시, 고로슬래드 등 포함) 17%, 물 7%를 배합해 만든다.

가장 많이 쓰는 강도 24MPa 레미콘은 1㎡(1루베)당 자갈 등 굵은 골재 1091kg(48%), 모래 등 잔 골재 629kg(27%), 시멘트 360kg(16%), 물 202kg(9%)이 들어간다. 레미콘가격은 이들 자재비에 운반비(인건비 포함), 타설비(인건비 포함),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해 매긴다.

2020년 당시 1루베당 6만7700원이었던 레미콘 가격은 7만1000(2021년)→8만300(2022년)→8만4500(2023년 1월)→8만8700(2023년 5월)→9만3700(2024년)으로 올랐다.

각종 자재비만 감안하면 레미콘에서 차지하는 시멘트의 가격 비중은 16% 수준이다. 여기에 각종 비용까지 추가

하면 시멘트값이 레미콘값에서 차지하는 실제 비중은 더욱 낮아진다. 게다가 전체 건축비에서 레미콘값 그리고 시멘트값의 비중은 더 미미하다.

레미콘업계에 따르면 국민주택규모인 전용 25.7평 아파트 건축시 들어가는 레미콘 양은 약 42.4루베 정도다.

정부는 현재 고시 건축비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기본형건축비'와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등에 적용하는 '표준건축비'로 구분하고 있다. 지난달 고시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는 ㎡당 210만6000원이다. 올해 표준건축비는 ㎡당 231만9000원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건설업계가 해외에서 시멘트 수입하는 것도 지원키로 했다. 해외란 중국을 말한다. <2면에 계속>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배터리 구독경제 구축 5년 내 매출 2배 목표”

(67조490억원)

LG에너지솔루션 비전공유회

새 비전 '에너지로 세상을 깨우다' ESS·UAM 등 Non-EV 사업 확대 SW, 서비스 영역 사업 기반 확보 차세대 전기 기술리더십 강화 추진



7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개최된 LG에너지솔루션 첫 비전공유회에서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이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우리는 더 이상 배터리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배터리 진단·관리 기술을 바탕으로 배터리 구독 경제의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2028년까지 매출을 2배 이상 확대시키고, IRA를 제외하고도 10% 중반의 안정적인 EBITDA 수익성을 창출하여 기업가치로 인정받겠습니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은 7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전사 구성원 대상으로 열린 비전 공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20년 말 공식 출범한 LG에너지솔루션이 기업 비전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에너지로 세상을 깨우다'

새로운 비전은 'Empower Every Possibility(에너지로 세상을 깨우다)'다.

LG에너지솔루션 사업의 본질은 단순히 배터리를 제조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저장하고 이동시켜주는 모든 '에너지 순환'에 있으며, 이러한 에너지 순환 생태계의 중심에 서서 무궁무진한 비즈니스의 기회를 열어 나갈 것이라는 뜻이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은 “비전은 지속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LG에너지솔루션의 궁극적 지향점을 담고 있다”라며 “잠재되어 있는 모든 힘을 깨우는 에너지로 우리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회사와 구성원들이 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비전의 의미”라고 말했다.

◆ 4대 중장기 전략 발표... “5년 내 매출 2배 이상 성장 목표”

이날 LG에너지솔루션은 새로운 비전을 바탕으로 오는 2028년까지 2023년(33조 7455억원) 대비 매출을 2배 이상 성장시키고, 미국 IRA(Inflation Reduction Act) 세액 공제(Tax Credit)를 제외하고서도 10% 중반의 EBITDA(법인세·이자·감각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를 달성해 안정적인 수익성과 현금 창출 능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ESS, UAM 등 Non-EV 사업 확대로 균형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 ▲LFP·고전압미드니켈(Mid-Ni)·46-시리즈 등 제품 및 고객 포트폴리오 다양화 ▲BaaS, EaaS 등 소프트웨어, 서비스 영역 사업 기반 확보 ▲전고체·건식전극 공정 등 차세대 전기 기술리더십 강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Non-EV 사업을 적극 확대해 균형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 가장 먼저 EV 사업의 의존도를 낮추고 ESS 사업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도심항공교통(UAM) 사업에도 투입 역량을 확대해 시장의 변화에도 부침이 없는 탄탄한 사업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EV사업 내 제품 및 고객 다변화에도 집중한다. 하이니켈 중심의 프리미엄 배터리를 넘어 LFP와 LMFP, 고전압 미드니켈 등 중저가형(Affordable)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높인다. 원통형에서는 고객의 요구에 맞춘 새로운 폼팩터를 적극 고려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소프트웨어, 서비스 영역 사업 확대로 탄탄한 매출 구조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BMS는 물론, BaaS(Battery-as-a-Service) 생태계 구축을 통해 배터리 리스(Lease), 렌탈(Rental), 재활용 등 다양한 서비스 사업을 확대한다. <3면에 계속>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임대료 줄이자... 유통업계, 사옥 이전 분주

내수침체로 수익성 개선 시급 희망퇴직 단행 등 인건비 축소

민간소비와 투자를 비롯한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유통업계가 효율성 강화에 속력을 내고 있다. 일부 기업은 지난해부터 인건비 예산을 줄이기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본사 이동을 통해 비용 효율화에도 나서고 있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의 e커머스 사업을 담당하는 SSG닷컴은 내년 2월에 사옥을 이전할 계획이라고 지난 4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공지했다. 이전할 사옥은 영등포시장에 위

치한 KB영등포 타워다. SSG닷컴은 자회사 패션 온라인 플랫폼 W컨셉과 함께 해당 건물을 사용할 예정이다.

SSG닷컴의 사옥 이전은 2022년 7월 이후 2년 만이다. 2018년 이마트에서 분리돼 별도법인이 된 SSG닷컴은 종각역 인근 종로 센트로폴리스에 있다가 2022년 7월 강남역삼동 센터필드로 본사를 옮겼다.

하지만 법인 설립 이래 지난해까지 영업손실이 누적되면서 비용 절감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지난해부터 본사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하는 등 수익성 개선에 따른 비용 절감에 속

도를 내고 있다. 본사 이전도 같은 맥락이다. 임대료가 낮은 건물을 임차하면서 비용 절감을 하겠다는 전략이다.

롯데그룹 계열사 역시 본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롯데하이마트는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 서울 강남구 본사 사옥을 대치동에 위치한 사옥으로 이전할 방침이다. 낮은 임대료에 따른 비용 절감이 목적이다.

롯데하이마트는 소비침체에 따른 가전 수요 감소로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비용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3면에 계속>

/최빛나 기자 vitna@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김 여사 '황제 관람' 논란에 유인촌 “뒤늦게 오셨다는 보고 들어” /사진 뉴스스
- ▲ 행안위, 국감 불출석한 21그램 대표들에 동행명령장 발부

- ▲ 국회 농해수위 소속기관 47곳 중 17곳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 ▲ 국힘 윤리위, '허위사실 유포' 김대남 당무감사위 조사 의뢰



- ▲ 조규홍, 자생한방병원 대통령실 특혜 의혹에 “감사 검토” /사진 뉴스스
- ▲ 유승민 “검, 명태균 의혹 철저히 수사하고 법대로 심판해야”